

## 수능 'D-100' 풍속도



어머니의 마음

201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11월 12일)이 꼭 100일 남았다. 수험생들은 'D-100' 이란 단어에 종합감을 느끼면서 행운을 기원해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는 속설 때문에 '100일 기념' 이벤트 준비에 저마다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3일 광주지역 고교와 학원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들의 100일 행사에서 영원한 논란은 바로 100일주(酒)다.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 판매 단속이 강화된 이후 '100일주' 이벤트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100일주 마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경찰도 '100일주'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인 만큼 가족이나 친구들과 견전한 '100일 이벤트'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 밖에서 일부 학생들이 하는 100일주 행사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도 "본인들이 이탈하는 사이에 경쟁자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알아서 주의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때문인 지 수능 100일에도 공부에만 매진하겠다는 학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가 지난 달 16~24일 고3 수험생 회원 6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응답자의 69%가 '수능 100일에도 평소와 같이 공부하겠다'고 답했다.

## 학부모들 자녀 위한 100일 기도

## 유통업계 관련 상품 판촉 이벤트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 밖에서 일부 학생들이 하는 100일주 행사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도 "본인들이 이탈하는 사이에 경쟁자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알아서 주의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때문인 지 수능 100일에도 공부에만 매진하겠다는 학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경찰도 '100일주'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인 만큼 가족이나 친구들과 견전한 '100일 이벤트'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 밖에서 일부 학생들이 하는 100일주 행사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도 "본인들이 이탈하는 사이에 경쟁자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알아서 주의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때문인 지 수능 100일에도 공부에만 매진하겠다는 학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들도 자녀 못지 않게 비장한 각오로 수능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 자녀의 고득점을 염원하는 100일 기도를 위해 절과 교회, 성당 등으로 학부모들이 몰리고 있는 것. 광주 무각사와 증심사 등 주요 사찰에서는 각각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100일 기도에 돌입했다.

고3 아들을 둔 이병자(여·47·광주 동구)씨는 "평소 다니던 절에서 4일부터 수능 때 까지 매일 100일 기도를 드릴 계획"이라면서 "엄마가 100일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힘을 낼 것이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동업계도 수능 D-100일 마케

팅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6일까지 8층 사운드관에서 '수능D-100일 관련 이벤트'를 열고 수험생 및 학부모가 당일 10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 수능 키트 7종 세트(수능D-DAY 달력, 아로마 향초, 졸음방지 티슈, 방석, 핫팩, 사인펜, 스텁워치)'를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www.auction.co.kr)에서는 오는 14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보양식을 종류별로 추천하는 '20% 할인 옥션 보양례사피' 기획전을 진행한다.

CJ몰(www.CJmall.com)은 'You can do it', 'Good luck' 등 응원의 메시지가 새겨진 목걸이를 비롯해 영어 숙어가 새겨진 '외국어 영역 목걸이', 수학 공식이 새겨져 있는 '수리 영역 목걸이' 등을 판매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끊긴 그물 줄에 감겨 선원 둘 사망

## 신안 임자도 해상

이 중상을 입었다.

신안 해상에서 새우잡이 어선의 걸 그물(자망·刺網)을 철거하던 중 그물 와이어가 끊기면서 2명이 숨지고 1명

닻자망이선 12t급 B호(선장 최모·53)에서 지름 20mm의 걸 그물이 선원들을 덮쳤다.

당시 선원 6명은 갑판에서 젖새우 금어기를 맞아 해상에 설치된 자망을

철거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선원 차모(39)·김모(35)씨 등 2명이 숨지고 유모(46)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선장 최씨는 "선원 6명이 양방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물 와이어가 끊기면서 줄이 선원들을 덮쳤다"고 진술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를

돌렸다. /이종행기자 golee@

## 사건 처리 불만 민원인

## 검찰 청사서 차량 방화

## 광주지검 해남지청

경매로 넘어간 데 불만을 품고 차 안에 있던 기름을 부은 뒤 불을 질렀다.

A씨는 이날 불을 지르기 전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검사는 2006년부터 서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검사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매 등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돋았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행사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한 취지를 설명했더니 A씨도 수긍하고 고소를 취하했었다"며 "경매 여부는 제권자들이 청구권한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검사가 이를 막아준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 공사장서 돈 뜯은 사이비 기자 또 구속

## 광주지검 특수부

시해 10만원을 받아 쟁기는 등 2007년 7월부터 30차례에 걸쳐 78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2007년 6월 석방된 직후부터 찬조금과 식사비 등 각종 명목으로 공사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 선교저수지에 변사체

3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에서 지체장에 3급급인 이모(42)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4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의 시신은 동부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인양됐으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

'퍽치기' 훔친 장물 팔려다 덜미

○~취객을 상대하는 이른바 '퍽치기'를 한 30대 남성 3명이 훔친 장물을 팔려고 중고물품 대리점 찾았다가 절도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임모(33)씨 등 3명은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모 편의점 앞길에서 취객 이모(50)씨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골목길로 유인, 이씨를 폭행한 뒤 현금 6만원이 든 손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모의했는데,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퍽치기를 했다"고 진술.

○~경찰은 임씨 등이 범행 직후 훔친 내비게이션을 팔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광주 도 중고물품 대리점 인근에서 잠복하다 이들을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